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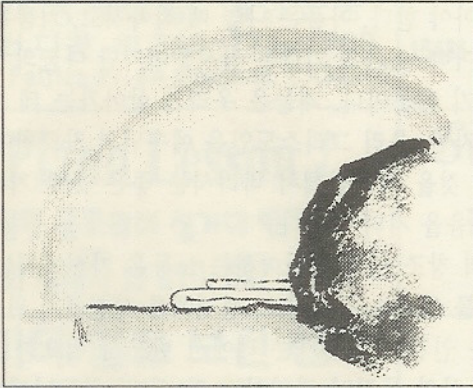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29권 20호(나해) 2009 · 4 · 12

[묵상]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었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 20,2)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망가지고 또 망가져 형태조차 알지 못하고,
낮추고 또 낮춰 이마가 땅에 닿아 흙이 묻고서,
비우고 또 비워 아무 것도 남지 않으면
더 빛나고, 더 높이 오른다고 하였다.
때론 자존심도 버리고,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되며,
남을 위해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간직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역설(逆說, paradox)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은 이를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삶의 법칙을 세워주셨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의 무력함을 취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가나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죄악과 죽음에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토록 큰일을 해 주신 하느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것을 다짐한다.
백삼위 모든 교우님과 그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빕니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부활대축일
낮 미사

(연) 김수환 추기경, 이금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차정진 마리아, 김시형 시릴로, 김인영 베드로, 이상현 베드로, 김소천마리아, 양영순, 박요셉, 이마리아, 닥터리, 엄은섭 도로테오, 이영자 마리아, 한숙이 모니카,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생) 이중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정린다 켈마, 김성종 토마스, 안성진 자수아, 박재훈 제임스, 오보나, 정연형 엘리사벳, 박진수 스테파노, 오진 베드로, 박바오로, 박분도, 임그레이스, 이윤조 글라라, 토런스 북구역 가족들, 이행자 리드비나, 이태석 요한 사제,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10,34-37-43

화답송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출들을 주자<전례서가 70 참조>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 하고자.○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제 2독서 콜로새서 (Colossians) 3,1-4<또는 1코린5,6-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부담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살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 (John) 20,1-9<또는 마르코 16,1-7>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재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2
봉헌	164,168
성체	169,166
파견	170

26.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 나눔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나는 그저 그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할 뿐”이라는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아픔은 나눌 때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 때 커지는 법이다.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나눔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곳에 기꺼이 나누어 줄 마음을 지녀야 한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은 자신에게는 물론 가정과 사회를 위하는 수고이고,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다.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그러나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보거나 후원하도록 노력하자.

☞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카 12,33-34)

☞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야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24-34)

(◆CBCK 제공 - 계속)

보고 믿었다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제는 고인이 된 친지들이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너리와 추억에서 잊혀지기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나의 기억력이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이분들이 계속
존재하며 살아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예감이
들곤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진술인 코린토 전서 15장을 읽다보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이들의 부활을 먼저
전제한다.(13절, 15절, 16절)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희랍의 현자들이 간파한 ‘영혼의 불멸성’이나
불교의 가르침인 ‘환생(re-incarnatio)’이 죽음 저
너머의 지속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과 희망을 표현하며, 또 이를 나름대로 통찰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주님 부활에 대한 전이해(前理解)라고도 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본 ‘빈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죽음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하느님의 아들로써 지니신 신성
(神性)으로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生命)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는
‘생명만이 있기에 죽음은 결코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죽음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神性)을 확인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어 육신

이 영혼과 분리된 뒤에도 육신은 항상 신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인간의 이 두 구성체인 영혼과 육신안에 남아 있는
신성(神性)의 단일성으로 이 둘은 다시 결합됩니다.
이처럼 두 구성체의 결합이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분리된 이 둘의 결합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한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들은 한결같이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마태 28,6;
루카 24,7; 마르16,7)고 전한다. 주님의 부활은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이다.(요한 20,9)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며 당신의 언약이 담긴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느님의 약속은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말하며 이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길은 오늘
복음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린
‘어둔 밤’ 가운데서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에 충실할 때이다.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이다.(가브리엘
마르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인생은 아름다워라!’라는 생의 긍정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또한 인간이
이룩하는 역사의 뒤편길에서 겪는 암울한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서도 이 역사를 긍정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실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이민상 요한 권순길 체칠리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이재용 안드레아 이혜선 안젤라		제2독서자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런스 동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알렐루야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
해주신 전례부,글로리아 성가대, 복사단, 전례봉사단,
제대회 등 해당부서 소속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부활성야에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7명
의 형제자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새영세자 : 권병유 프란치스코, 김은지 릴리안,
박정병 마르티노, 박승림 요셉, 배본호 니콜라오,
이정민 소피아, 이승준 미카엘
- 축하식 : 오늘 부활대축일 미사 후 강당.

◆ 성모회 월례회의

- 일시 : 오늘 대축일 미사후 오후 1시 유아실
- 토의해야 할 주요안건이 많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 백삼위 4월 M.E. Sharing

- 일시 : 16일(목) 오후7시
- 장소 :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율리아 댁 ☎768-1488
- 5월 첫주말 참가자 확정 : 이명렬 라파엘 & 명순 크리스티나,
윤화경 바오로 & 경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 홍광선

◆ 한국어 Virtus 트레이닝 교육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학생 등 가톨릭 교회내 미성년자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성인들은 연방정부와 LA 대교구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일시 : 4월18일(토) 오전 10시30분~12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 대상 : 신부님, 수녀님, 사목회 회장단, 총무분과위원, 사회복
지분과위원, 청소년분과위원, 주일학교 교사, 한국학
교 교사, 배론청년회 회장단, 사무장, 기타 희망자
- * 문의 : 최안젤라 자매(백리성당) ☎(201)906-2433

◆ 백삼위 본당 견진성사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 견진성사 : 4월2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에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서두르십시오.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694-4585

◆ 요셉회/안나회 봄철 온천관광

- 일시 : 4월28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정원 55명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권영옥 루치아 ☎(310)720-2876.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준비물 : 수영복, 슬리퍼, 따뜻한 겹옷, 수건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부활절을 맞아 성물부에서 새로운 성물을 많이 준비했습니
다. 새영세자들과 견진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
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사순절 희생 애금봉투 봉헌

- 희생과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를 아직 봉
헌하지 못한 분들은 주일미사 중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12일(부활대축일) : 성모회(전신자 부활떡 나누기)
- 4월19일(주일) : P.V. 2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기정	김대우	김미현	김병조	김선제
	김양금	김영경	김옥보	김일선	김재연	김정렬
	김정웅	김종환	김준호	김한진	김현숙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모은기	문충한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상준	박준구	박희자	반비오	배기엽
	서홍삼	송기철	신대철	안민수	엄세종	오수인
	오진	이강우	이경용	이귀란	이근모	이문종
	이상석	이연행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태욱
	이희수	장수창	정기은	정지숙	정훈모	조운영
	주태청	차병용	최금옥	최상만	최수복	최인홍
	한애섭	한혜숙	홍주희	황학수	박제이	콥
	합계 : \$5,870					
미사헌금 : \$2,733						
2차헌금 : \$819						

성전헌금	고천용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일선	김재연	김종환	김준호	김한진
	김현숙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모은기	문충한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상준	박준구	박태준
	박희자	반비오	배기엽	서홍삼	송기철	신대철
	안민수	엄세종	오수인	이정용	이귀란	이근모
	이문종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태욱	장수창
	정지숙	정훈모	조운영	주태청	차병용	최상만
	최인홍	한혜숙	홍주희	박제이콥		
	합계 : \$4,756.34					
감사헌금 : 변혜경 유지숙 이강우 리사이클링 수입 : \$45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부활절 방학

- 오늘 부활대축일에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Egg Hunting/그림 전시회

- 일시 : 오늘 부활 대축일(12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후 성당 잔디밭에서 달걀찾기 행사가, 천교장에선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나의 예수님' 그림이 전시됩니다.
- 이날은 수업과 점심이 없으므로 행사후 바로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함께 미사와 행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끝나는 예정시간 : 오전 11시)

◆ 은총시장 행사

- 일시 : 4월19일(주일) 학생미사 후 각 반별로 있습니다.
- 초등부 학생들이 사순시기 중 기도문 암기, 주일미사 참례, 성경쓰기 등으로 얻은 포인트에 따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 주일학교 은총시장을 위하여 성모회에서 \$200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상반기 한국학교 교사 연수(중급과정)

- 일시 : 4월29일~5월2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 9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강당
- 교과목 : 창의적 사고력 키우기, 읽기교육, 문법, 쓰기, 글짓기, 중급반 모델수업 등
- * 문의 : 이헬레나 본당 한국학교 교장 ☎(310)347-8765

남가주 소식

◆ 미주 가톨릭 농아 선교회 4월 '수어 미사'

가톨릭신자 농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미사가 매월 3번째 토요일(특전미사) 성 마리아 성당에서 있습니다. 특히 수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4월 18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마리아 성당(2035 Otterbein Av. Rowland Hight, CA 91748) ☎(626)839-6406

◆ 하느님 자비의 축일 특별행사

- 일시 : 4월19일(주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성 바실 회관(3535 W. 6th St. LA
- 주례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
- 행사 : 자비심 기도, 미사, 성체강복
- 문의 : 성 바실 성당 ☎(213)389-3142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신현화 테레사 533-9538 4/24(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4/18(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4/17(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4/19(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철우 야고보 373-8340 4/8(수) 오후 7시, 양산박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미리암 429-6204 4/16(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4/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김율리아나 325-6982 4/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강은진 켄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4/17(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1 4/17(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도완 다니엘 892-1213 4/1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프란체스카 가보라 265-0495 4/16(목) 오전 10시, 성당

2009년 부활절 메시지

감사와 사랑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온 세상에 신비로운 생명의 새싹이 움터 나오는 따뜻한 봄과 함께 기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세상 모든 이들과 특별히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죄와 불의와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1코린 15,14 참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라고 하셨던 약속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과거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용기백배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리를 죽음과 죄악에서 구해주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 신자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맞이해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마태 19,19)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우리 사회에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인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감사와 사랑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종교를 넘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는 범국민적인 정신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부터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라도 많은 이들이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결국에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로마 13,10 참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우리 사회에 빛과 희망을 다시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 교회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12일 부활절에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